

“5·18 비극의 현장에서 계엄 옹호 집회라니” 규탄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 거센 비판 광주 시민들 “민주정신 폄훼 행위” 서울·대구서도 참석 “尹 탄핵 하라” “대통령 파면때까지 목소리 낼 것”

“45년 전 계엄에 맞서 싸우다 숨진 시민군의 아픔이 서려 있는 금남로에서의 계엄 옹호 집회는 광주 시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 아닌가요.”

광주에서 열린 극우 세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1·2·3·4가에서 진행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로 인해 금남로 거리는 가득 채워졌다.

보수 성향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흥국화재 빌딩 앞부터 금남로 5가 일대에서 ‘전남국가비상기도회·도민대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5·18항쟁지인 금남로에서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것을 두고 “반민주적이며 광주 5·18 정신을 흠집 내는 것이다”고 규탄했다.

이날 금남로 반대편에서 개최된 윤 대통령 탄핵촉구 집회에는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광주지역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



지난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각각 열린 가운데 탄핵 반대 참가자가 탄핵 찬성 집회 장소에 진입하자 경찰이 충돌을 막아내고 있다. 김양배 기자

혁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흥국화재 건물 일대에서 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일타강사 황현필(역사바로잡기소장)씨는 무대에 올라 “얼마든지 자유를 이야기해도 되지만 내란수괴 옹호 집회를 하는 건 홀로코스트 나치추종자·매국 좀비”라며 “이승만과 박정희·윤석열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민주주의의 피가 뿌려진 이곳에서 내란수괴 지지자들의 집회가 말이 되는가

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화북발기환우회’ 깃발을 든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도 금남로를 찾아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리에 앉거나 서서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 종사자 동조세력 처벌” 등의 구호를 외쳤다.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이뤄진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내려온 김재출(67)씨는 “지금 집회에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말도 안되며 또 폭력 사태가 일어날까 봐 두렵지만 절대 탄핵

찬성측이 기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자리를 채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광주 시민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허우진(34)씨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지고 싶지 않아 광주 집회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민주화의 대명사인 광주 금남로에 탄핵 반대 세력이 올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치기 떨린다”고 비판했다.

수원에서 내려온 김하은(32)씨는 “12·

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구지역에서 극우 세력들이 광주에 와서 집회를 참여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금남로를 지키기 위해 왔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희생이 이뤄진 이곳에서 윤석열의 계엄이 정당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는 보수 단체에 분노를 느꼈다. 윤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거리에,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들은 1980년 5월 계엄 철폐와 신군부 독재 퇴진을 요구하면서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오월 정신이 훼손됐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박경균(36)씨는 “45년 전 계엄군들이 짓밟고 간 자리에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세력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학생 황운태(15)군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 집회에 참석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진명(27)씨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윤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며 “5·18을 비하하는 세력이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상이 기자 sangajeong@jnilbo.com

유명 한국사 강사 2명, 탄핵 찬반 집회 연사로

금남로 탄핵 찬·반 집회 이모저모 5·18 가짜뉴스 담긴 신문 등 살포

● ‘한국사 일타강사’ 나란히 연사로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벌어진 윤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집회에 한국사 ‘일타강사’가 각각 연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보수 성향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전남국가비상기도회·도민대회에 연사로 나선 전한길씨는 “오

늘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화합과 통합을 위해 모였다”며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이 똘똘 뭉쳐서 극복했다. 지금이 우리가 뭉쳐 위기의 대한민국을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주최한 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는 역사 유튜버이자 한국사 강사인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회 소장이 무대에 올랐다.

황 소장은 “반국가세력이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인데, 헌법을 부정하는 것만큼 더 크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있느냐”며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은 우파, 극우라는 말도 아깝다”고 강조했다.

● 5·18 왜곡·허위 유인물 뿌려져 이날 100m가량의 경찰버스 차벽을 두고 비슷한 시각에 찬·반 집회가 개최되면서 양측 참가자들이 일시적으로 뒤섞이면서 언쟁을 벌이기는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상황이 일단락되면서 큰 충돌은 발생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황현필(왼쪽)씨와 전한길씨. 김양배 기자·연합뉴스

하지 않았다.

다만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왜곡된 내용을 담은 신문과 유인물을 곳곳에서 배

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무료로 뿌려진 한 전단지에는 “북한 개입 내란, 폭동”, “5·18 가짜유공자 명단” 등 거짓 정보가 담겨 있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보도 신문 2000여부가 거리 곳곳에 배부되기도 했다.

이에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수많은 기록물과 증언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희생된 우리 오월영령들이 통곡할 일이 광주에서 벌어졌다. 이걸 우리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정상이 기자 sangajeong@jnilbo.com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업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태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